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훌륭히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용기를 타시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전경을 공중에서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을 깨끗하고 규모있게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 걸맞게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완전히 일신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복도식탑승다리로 내리시여 새

로 건설한 항공역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항공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현대적미감과 민족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시공하였다고 카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출발대

기흘, 출발수속홀, 도착수속홀, 도착현판홀, 봉사홀, 귀빈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돌아보

면서 내부시공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지적해주고 30여건의 개작형성안을 비준하여주었는데 짧은 기간에 건설을 끝냈다고 하시면서 구석구석 손색이 없고 완전무결

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사

상파 령도를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받들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숭고한 애국심을 안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선군시대의 본보기적건축물로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훌륭히 완공한데 맞게 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7월 1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항공봉사영업을 시작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에서 발휘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을 수많이 일떠 세워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행장 활주로에 나가시여 녀성전투비행사들의 리착륙단독비행훈련계획을 료해하시고 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전투비행사들의 단독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나어린 처녀들이 정말 용라고, 하늘

의 꽃이라고, 전군사에 처음으로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났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훈련이 끝난 다음 녀성전투비행사들인 조금향, 림설동무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비행훈련 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난 날이 라고 하시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 온 나

라, 특히 우리 녀성들이 기뻐할것이라고, 련성파를 자랑하게 하자고, 항공군사령부무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 불굴의 녀성혁명가들이라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을 결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 딸들이 초음속전투기를 타고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을 지키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조금 향, 림설동무들을 집에 보내여 오늘의 훈련목표를 정해주시였다.

본사기자

사람들의 생활에서 약속은 흔히 있는 일이다.

예로부터 약속은 사람의 금새를 헤아려보게 하는 시금석이라 일컬어왔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의가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여왔다.

그러나 공화국 인민에게 있어서 약속이란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친분이나 생활에서의 신뢰라는 의미를 초월하여 가

장 뜨거운 사랑, 저절로 마음이 펼리여 따르는 절세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토의 의미로 더욱 중엄히 새겨지고 있다.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화

흔히 약속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련인들간의 약속, 부모와 자식간의 약속, 스승과 제자호상간의 약속, 벗들간의 약속 등에 대해 생각한다.

그 어느 역사의 갈피에도 령도자와 인민간의 약속이라는 말이 기록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령도자와 인민간의 약속이라는 말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송가로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사랑의 약속을 하신다.

공장과 농촌의 노동자, 농민들 또 외진 섬초소의 군인들과 과학자들, 나어린 학생소년들과 만나시여 그이께서 하시는 약속은 늘 배우는 사랑이고 행복이다.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보란듯이 내세우겠는가 하는 그 숭고한 목적과 위대한 사명감으로 마음을 불태우시여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하많은 약속을 하신다.

그이의 약속에는 언제나 실천이 따르고 인민이 바라는 이상을 초월한 행복과 기쁨의 결과가 있다.

주체 102(2013)년 한해만 놓고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신 약속은 그 열마였던가. 8월의 땅볼이 쏟아지는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신 원수님께서는 그날 올해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

원수님의 약속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으로 이 땅의 날과 달이 흐르고 그 약속으로 이 땅의 모든 번영과 만복이 꽂혀나고 있다.

그 약속의 세계에는 파연 무엇이 비껴있고 그 약속에서 인민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살림집을 짓고 래년에는 김책 공업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 있는 평성지구와 경치좋은 연풍호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도 건설해주겠다고 약속하시였다.

그해 9월에는 또다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을 돌아보시며 이미 약속한대로 모든 살림집들에 액정

TV도 놓아주는것과 함께 여러 가지 그릇들도 일식으로 더 보내주시겠다고 은정에 은정을 덧놓아주시였다. 그이께서하신 약속대로 지난해에는 대동강반에 행복의 둑배 모양의 덩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어서 새집들이

경사가 났고 웅근 하나의 새 도시를 방불케 하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솟아났으며 풍치 좋은 연풍호기슭에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휴양소가 생겨나온 나라를 홍성하게 했다.

지금은 대동강반의 도로를 따라 대규모의 미래과학자거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어 이제 새 집을 받게 될 과학자, 교육자들의 기쁨은 끝이 없다.

그이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너성로동자들을 위한 홀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낚은 합숙건물대신 웬만한 호텔들에 비길수 없는 현대적인 로동자 학숙이 덩실하게 솟아난 이야기도 김정은시대에는 평범한 이야기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의 실천은 보통의 실천이 아니라 최상의 실천이다. 그이는 인민들과의 약속

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수준, 황홀한 경지에서 현실로 이루어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솟아나고 펼쳐지는 희한한 창조물들,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하신 약속이 현실로 펼쳐진 그 모든것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도 기성의것, 반복이라는것이 없다. 모두가 새롭고 이전 시기에는 도저히 볼수 없었던 황홀한 창조물들이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인민들의 감탄과 경정이 터져나온다. 살림집도 최고수준, 물놀이장도 최고수준, 스키장도 최고수준, 공장도 최고수준, 병원도 최고수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과 하시는 약속은 태양의 빛발파도 같이 로동자, 농민, 과학자, 교육자, 체육인, 군인, 늙은이와 아이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뜨겁게 흘러드는 사랑의 약속이다.

그이께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시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그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올해 설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원아들의 집을 찾으시였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았다고 하시는 그이께 원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였다.

아무리 일감이 쌓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많지만 원수님께서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친아버지 사랑을 주는것만큼 바쁜 사업이 없으셨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시였다. 원아들과 하신 약속은 원수님께서 있어서 철부지어린이들과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떠나고나갈 앞날의 역군들과 하신 귀중한 약속이었던 것이다.

하기에 원수님께서는 원아들과의 약속을 지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아이들의 궁전으로, 행

복의 보금자리로 꾸려주시였고 그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얼마 전에는 동해지구에도 현대적인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일떠세워 아이들에게 안겨주시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로인들을 위한 양로원도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현실로 이어져 지금 대동강반의 경치좋은 곳에로인들을 위한 최상의 양로원이 완공단계에 있어 사람들의 눈굽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역사의 갈피를 번져보면 인민은 그 어느 시대에나 사회의 최하층존재였다. 하기에 인민의 운명사엔 언제나 수난과 고통이 뒤따랐고 멸시와 천대만이 숙명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오늘도 세상을 둘러보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인민을 위해 큰 기여나 할 것처럼 갖가지 공약을 람발하고 더 보란듯이 내세우겠는가 하는것을 담으신다.

공화국의 모든 정치는 인민들에게 최고의 혜택, 최고의 배려가 차례지는 약속으로 일관되여있다.

그 약속에서 인민이 바라는 꿈과 리상이 하나하나 눈부신 현실로 이 땅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멸사복무, 위대한 혼신의 세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인민과 한 약속을 지켜 바치시는 애민현신의 감동깊은 화폭들로 하여 더더욱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하여준다.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하신 약속을 실현할수 있다면 가지 못할 길도 없고 찬눈비도 기꺼이 맞아야 한다는것이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공화국의 바다우에 펼쳐진 황금해의 새 령사를 놓고도 그이께서 인민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시는가를 절감 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에 남기신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데 대한 문건을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시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시려고 원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동해어장과 서해어장, 내륙의 양어장들을 쉬임 없이 찾으시였다.

룡정양어장과 5월27일수산사

련 조건에 빙자하여 유권자들과 한 약속은 한참 뒤전에 밀어놓는것이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원성은 하늘끝에 사무치고있다.

하지만 인민대중을 령사의 수난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든것의 주인으로 당당히 내세워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사상이 현실로 펼쳐진 공화국에서는 오늘도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고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나의 시책, 하나의 정책을 내놓으시여도 언제나 인민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게 하고 더 보란듯이 내세우겠는가 하는것을 담으신다.

공화국의 모든 정치는 인민들에게 최고의 혜택, 최고의 배려가 차례지는 약속으로 일관되여있다.

그야말로 공화국의 인민들은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만복속에 살고있으며 인민의 하나하나의 웃음과 노래소리에는 그이께서 바쳐가시는 령과 심혈의 무한대한 세계가 비껴있다.

얼마전 원산에는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희한한 궁전으로 솟아올랐고 평양의 대동강 기슭과 쑹表面上에는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이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솟아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과 하신 약속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은 끝없는 애민현신이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령의 천만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 압살책 동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면서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는 인민으로 내세운다는것은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각오한 혼신적복무정신과 노력이 없이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약속에 둘려 솟아오르는 천하제일강국에서 우리 인민은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문수 물놀이장

6. 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가 25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차체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제패를 실현할 야망 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방대한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인류전쟁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국수호의 성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는 오늘까지 남조선을 강점하고 반공화

국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 있다.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대격에도 불구하고 각종 핵무기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호전광들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범위하게 벌리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내들고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다그치는 한편 얼마 전에는 우리에 대한 핵선제

『4대 작전원칙』을 공개하고 미국남조선련합사단까지 조작하여 북침전쟁망기를 부리고 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비밀리에 퍼뜨려온 사실은 미제 살인귀들이 우리 민족 말살을 노린 생화학전쟁도발에 미쳐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역사와 현실은 미제야말로 침략전쟁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연설자는 모두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 반미대결전

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로동자 리기념,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락랑구역 금대협동농장 판리위원장 허춘금,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박성철이 연설하였다.

대회는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미제를 물어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쏟아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취주악의 힘 있는 노래선률에 발을 맞추어 나갔다.

시위참가자들이 추켜든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 『병진로선』, 『반미대결전』, 『최후승리』 등의 선전화들과 손구호들은 세기를 이어오며 계속되는 반미대결전의 마지막 폐지를 온갖 죄악의 총본산인 미국땅에서 백두산총대로 통쾌하게 써주고야말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을 힘 있게 보여주었다.

한편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가 25일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 등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각계층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대회들이 끝난 다음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세기를 두고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풀수 없는 원한을 남긴 철천지원쑤 미제를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혁신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 애밀 멀적의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며 거리들을 누벼나갔다.

본사기자



대
담

포전담당책임제, 그 생활력 뚜렷이 실증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독특한 농업경영방법인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한 후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각자의 협동력을 찾아 경제부흥의 실정을 료해하고 있는 지명수 농업과학원 농업경영연구소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비등되는 생산열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참다운 우월성은 농장원들이 분조포전을 자기 포전처럼 생각하면서 분조농사와 경영관리에 주인답게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라는데 있습니다.』

지명수 실장은 최근 농업부문에서 농장원들의 생활열의를 높일 목적으로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우월성이 실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 실시의 경제적원리는 분조안의 노력구성상태와 외부림소를 비롯한 생산수단준비정도에 따라 농장원 2~3세대 또는 3~4명 규모로 작업조를 구성하여 농사차비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년중 포전을 고정담당시켜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포전에 종전에 50여 일 걸리던 농사결속을 불과 열흘에 끌고 있는 것도 달라진 농촌풍경입니다.』

주인다운 립장과 알곡증산

지명수 실장은 지난 시기 농업부문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농장들이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크게 도약한 실례가 많다고 말한다.

『포전담당책임제에서 는 농민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부침조건이 각이한 포전들을 농장원들에게 공

수 있는 수백개의 조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한조의 규모도 평균 4~5명으로 작게 정하였다. 이렇게 하니 농장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포전의 실태를 지난 시기보다 더 잘 알고 지역상태와 특성에 맞게 농사



를 지어 높은 소출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평안북도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도 기본생산

합리적인 분배 방법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어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 분배원칙과 인연이 없는 평균주의가 퇴치되고 농민들에게로 토동의 질과 량에 따라 보다 정확히 평가 할 수 있게 되었다.

포전담당책임제에서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민들에게로 토동에 따라 현물을 위주로 하여 분배 한다.

지명수 실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실효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100년래의 왕가물이 들이닥친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알곡증산을 이루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그전해보다 알곡을 정보당 1t 이상 더 생산한 평안북도 통천군 양서협동농장 경우만 놓고 보아도 잘 알 수 있었다.

이곳 농장에서는 분조를 에 포전담당책임제를 할

정하게 나누어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땅의 주인, 알곡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전해보다 알곡을 정보당 1t 이상 더 생산한 평안북도 통천군 양서협동농장 경우만 놓고 보아도 잘 알 수 있었다. 이곳 농장에서는 분조를 자각하고 애국적열의를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가 보장된 일

◇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찾아서 ◇

얼마전 우리 는 대중약품생산기지로 잘 알려진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찾았다. 아담하면서도 깨끗한 건물들과 잘 조성된 농지들, 울창한 수림을 이룬 나무들…

『마치 휴양소에 온 기분입니다.』

우리는 공장 정문에서 고영금지배인을 만나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었다. 이어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제품진열실에 들어선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제품진열실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갖가지 수많은 약품들이 품종별로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미노필린주사약, 디메드롤주사약, 노보카인주사약, 마가목기침단물약, 사포솔, 아스파린알약, 디메드롤알약, 체프라딘교감약, 헤오필린교감약, 류미환, 인진고…

제품진열실에서 우리는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력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 공장은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사업에 필요한 약품들을 연

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제약생산기지로 일떠섰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 공장을 찾으시여 종합적인 제약공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느라니 정성제약 종합공장이야말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유산이라는 생각이 갈

마들었다.

우리는 공장의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부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의약품검정소에도 들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이곳 검정소는 물리화학실험과 미생물실험, 생물실험, 계기분석실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의약품검정소에서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검사를 GMP(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엄격히 진행하여 의약품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이어 우리는 의약품들을 여러 공장들도 돌아보았다. 수액공장, 주사약품공장, 알약품공장, 고압약품공장, 생물약품공장, 고려약품공장들마다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에 필요한 갖가지 의약품들과 보약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특히 수액생산공정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조제공정, 려파공정, 멀균공정, 포장공정 등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되어 있고 흐름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참으로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정성제약종합공장은 최첨단을 향하여 전진하는 나라의 제약업체발전을 직관적으로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공장을 돌아보며 감탄하는 우리에게 고영금지배인은 『우리 공장 제품들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철저히 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공장의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부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의약품검정소에서도 들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이곳 검정소는 물리화학실험과 미생물실험, 생물실험, 계기분석실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의약품검정소에서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검사를 GMP(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엄격히 진행하여 의약품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이어 우리는 의약품들을 여러 공장들도 돌아보았다. 수액공장, 주사약품공장, 알약품공장, 고압약품공장, 생물약품공장, 고려약품공장들마다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에 필요한 갖가지 의약품들과 보약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본사기자 김철호





공화국에서 축구를 통체조가 새로 창작되어 축구선수들과 감독들, 지도교원들과 학생들 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다.

축구를 통체조는 축구선수들과 선수후비들의 훈련이나 경기 전 준비 운동을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진행하는 체조를 말한다.

이러한 통체조는 축구와 음악이 밀접한 혼연一体로 있는 파악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 축구련맹이 발표한데 의하면 축구선수들 자체가 대체로 열광적인 음악에 호가들로서 음악을 통해 음정, 박자, 리듬을 알게 되고 경기 분석에 필요 한 혼리적 기술과 통체적인 동작을 체득하게 된다고 한다.

음악이 축구선수들의 능력을 얼마나 높여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수들이 축구동작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며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공연락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새로 창작된 축구를 통체조는 맨손으로 하는 통체조와 통체지면 공다루기, 통체지면 공다루기로 되어 있다. 맨손으로 하는 통체조는 27가지 동작으로, 통체지면 공다루기로는 선수들이 선수들의 뒤전

는 32가지 동작으로, 통체지면 공다루기는 신체의 50여 개 부위로 공을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맨손으로 하는 통체조에는 청소년 체육 선수들의 심리에 맞는 경쾌한 노래 《우동불》을, 통체지면 공다루기와 통체지면 공다루기에는 빨찌산식 공격 전법으로 체육 강국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을 체육인들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노래 《공격전이다》, 《달려 가자 미래로》를 편곡하여 티용하고 있다.

축구를 통체조의 때 동작들은 축구기초기술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 축구선수들의 유연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축구기초기술 동작들에 대한 숙련를 공고화하고 공감각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새로 나온 축구준비 운동을 위한 통체조를 배우고 있는 축구선수들은 물론 감독, 지도교원, 학생들은 한결같이 훌륭하고 실리가 있는 통체조라고 말하고 있다.

허순희 압록강체육단

녀자 축구 감독은 《축구준비 운동을 위한 통체조를 처음 배울 때 우리 감독들은 선수들의 뒤전



에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 과정에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휴식 시간에도 선수들과 통체동작을 익히었다. 내가 선수생활을 할 때에는 이런 통체조가 없었다. 이제는 우리 축구선수들과 선수후비들에게 통체의 유행성과 정확성, 민활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마가 생기었다.》

이렇듯 훌륭한 축구를 통체조가 어떻게 창작되었을까? 이에 대해 장봉용 축구련맹 총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축구선수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던 축구준비 운동을 위한 통체조를 하니 흥미가 있고 재미있다. 훈련이나 경기 전에 통체조를 하니 몸이 활짝 유연해지는 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통체조를 속련시켜 하루빨리 축구기술 수준을 높이고 세계적인 유능한 축구선수로 준비해갈 결의를 피력했다.

본사기자 박철남

위해 선수들과 선수후비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고심어린 노력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축구를 통체조는 축구선수들과 애호가들, 나아腥 축구선수후비들도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환영을 받고 있다. 창작가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평양에서 평성으로 또 함흥과 사리원, 강계 등으로 축구를 통체조 보급의 길을 쉬임 없이 이어가고 있다.

박성 통남 산체육단 축구선수는 《경쾌하고 힘 있는 음악에 맞추어 통체조를 하니 흥미가 있고 재미있다. 훈련이나 경기 전에 통체조를 하니 몸이 활짝 유연해지는 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통체조를 속련시켜 하루빨리 축구기술 수준을 높이고 세계적인 유능한 축구선수로 준비해갈 결의를 피력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반만년 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전성기를 펼쳐가고 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 밑에

한 사람에게 기왕이면 남이 잡지 않는 곳에 가서 잡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는가고 묻는 나에게 그는 《고기 잡이도 좋지만 낚시 경험도 배우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게 얼마나 좋은가.》고 흥겨운 어조로 대답하는 것이다.

휴식일이면 만나군 하는 이들의 아침처럼 이 땅 누구에게나 정서와 맛만에 넘친 생활이 있다. 누구는 가족과 함께 고 있는 모습은 휴식일의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이제는 어지간히 낮을 익힌 낚시꾼들과 갓 낚시질을 시작한 애호가들의 직업과 나이는 각이 하지만 어깨나란히 앉은 그들과 함께 고기를 낚아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낚시질에 여념이 없는

라고 미국과 남조선 사이의 협회 잠수함 훈련이 진행된다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리자의 배심이 든든한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쯤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낚시꾼들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는 듯 낚시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제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들다가 통쾌하게 물속에 수장 베릴 어리석은 뇌들의 잠수함을 낚는다며 미끼를 문 물고기를 물들이장으로 또 누구는 놀음 우거진 모란봉의 을밀대를 찾아서...

그 무슨 《북핵 위협》과 《인권 문제》를 죄에 걸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적대 세력들의 고립 암살책 동이 그 어느 때보다 국도에 달하고 있다.

어디선가 아침공기를

강원성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떨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였다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오사까지부대 표단 단장 강조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오사까지부대 표단 단장 송재수는 인민 생활 향상과 경제 강국 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조국에서 경애하는 사변들이 일어나고 련일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

의 과학 연구 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와 심혈을 바쳐가고 계신다.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에 의하여 조국의 과학 기술 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훌륭한 성과들을 이루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한한 영광과 행복에 넘쳐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떨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였다.

본사기자

상한 수채화 《누구 키가 더 큰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의인화된 형상으로 생동하게 그려낸 동화 그림책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등 아동화들은 우리 나라 아동화의 발전 수준을 대표하는 성과작들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삽화, 수채화, 판화, 선전화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과 유화, 조선화, 벽화 모사와 같은 다른 종류의 회화 작품들도 능숙하게 그려냈다.

또한 이름 있는 출판화가들인 백학훈, 박진수와 같은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등 그가 나라의 미술 발전과 민족 미술 유산을 보존 정리하는 사업에 기여한 공로는 크다.

그의 안해인 남궁현은 이름난 영화 배우로서 우리 인민의 기억에 인상깊게 남아있다.

최명수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재능 있는 삽화가

그러다가 1935년에 동아일보사 광고부에 취직하여 광고 그림을 그린 것이 계기로 되어 출판 미술을 전문하게 되었다.

현재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황해 남도 안악군 오국리의 무덤 벽화들은 정현웅과 손영기가 모사한 것들이다.

2004년 《북남 공동 자료 전시회》에 참가했던 남조선 학술 성원들과 기자들은 조선미술박물관에 무덤 벽화 실을 돌아보면서 모두 감탄하였다. 서울 국립 미술박물관 관장은 벽화 모사 수준이 높은데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정현웅은 1957년부터 1975년까지 조선미술가동맹 중앙 위원회 출판 환분과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형상성이 높은 미술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가 그린 수채화 《한복의 미시가루》(1962년), 《누구 키가 더 큰가》(1963년), 연필화 《갑오농민군의 고부해방》(1955년), 《미제의 남연 군도굴》(1957년), 삽화 《토끼전》(1955년), 동화 그림책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1959년) 등은 당시 인민들 속에서 좋은 반영을 불러일으켰다.

정현웅은 민족 문화 유

수채화 《누구 키가 더 큰가》는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 동심세계를 생동하고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착상이 기발하고 구성이 간결하며 부드럽고 친근한 묘사는 어린 아이들의 생활을 그렸으나 어른들도 너무 심통하고 재미 있어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 작품은 국가 미술 전람회에 출품하여 1등상을 받았다.

지금도 조선미술박물관 현대 미술 작품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은 참 판자들의 감명을 자아내고 있다.

정현웅은 또한 유화 《전주 성립》(1961년)과

같은 실재 하였던 혁사적 시기를 그대로 방불케 하는 혁사화들도 창작하였다.

1960년대 조선화를 집중적으로 습득한 정현웅은 조선화 《천리길》을 걸으시여 만경대 고향집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비밀 혁명 소모임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1972년)와 같은 수령님의 혁명 활동력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교양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화가 정현웅은 해방 전시기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제의 어용 신문사에서 부르조아련애 소설이나 복고적인 고리 타분

한 내용의 삽화를 그리던 품팔이 화가로부터 공화국의 품 속에 안긴 그때부터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인민의 사랑을 받는 미술가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그의 화법 특징은 묘사 대상을 치밀하고 섬세하게 그리며 작품마다 고전미와 민족적 색채가 짙게 안겨오도록 형상화한 것이다. 그는 자기의 묘사 기법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주제 분야인 혁사화와 아동화를 많이 그렸다. 특히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무력 무력 커가는 귀여운 어린이들의 밝고 깨끗한 심리 세계를 치밀한 화면 구성과 간결한 색채 표현으로 훌륭히 형

그는 삽화, 수채화, 판화, 선전화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과 유화, 조선화, 벽화 모사와 같은 다른 종류의 회화 작품들도 능숙하게 그려냈다.

또한 이름 있는 출판화가들인 백학훈, 박진수와 같은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등 그가 나라의 미술 발전과 민족 미술 유산을 보존 정리하는 사업에 기여한 공로는 크다.

그의 안해인 남궁현은 이름난 영화 배우로서 우리 인민의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있다.



수채화 《누구 키가 더 큰가》 (1963년)



수채화 《실뜨기》 (1966년)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당이 지게 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지난 23일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배격에도 불구하고 피뢰당이 끝끝내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건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를 서울에 설치하였다.

이에 대해 지금 피뢰당국자들과 어종이떠종이들이 입을 모아 『력사적인 리정표』니, 『필요한 지원과 협력』이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으며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당도 이 기회에 『국회』에 머물러있는 『북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을 쓰고 있다.

이에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환경』이니 뭐니 하고 지껄여대면서 반공화국 압살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특대형 정치적 도발 행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국의 조종 밀에 피뢰당이 감행한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 설치 소동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로그적인 선전포고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5돐을 맞으며 우리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엄중한 위기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 입장과 공명 정대한 방도를 천명하였다.

온 겨레가 우리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받아안고 환호하며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는 때에 박근혜당이 추악한 대결 모략 소동을 공공연히 벌린 것은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전면儿부하고 겨레의 기대와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이다.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것은 승승장구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질겁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해 한줌도 안 되는 인간쓰레기들의 허위증언으로 날조된 자료를 내들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불법적인 모략기구이다.

때문에 남조선의 각계 총은 『유엔의 탈을 쓴 반북 모략기구』, 『인권의 탈을 쓴 기만적인 내정간섭 기구』로 규탄하면서 체제 대결을 부추기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며 전쟁을 불러오는 『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서방 언론들도 유엔의 『북인권보고서』

와 『북인권결의안』, 『북인권사무소』라는 것이 국도의 편견과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으로서 아무런 신빙성이 없으며 이런 것이 유엔 문전, 유엔 기구로 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 배격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미국의 부주 김 밀에 『유엔의 요청』이라는 보자기 를 써워 모략의 소굴인 서울에 그따위 대결 기구를 끝끝내 끌어들임으로써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이 풀 수에 배일대로 배인 대결 광신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오늘 국제적인 인권 감시와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남조선을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로 전락시킨 박근혜당이다.

미제 침략 군약기들이 남조선 주민들에게 온갖 치명적인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감행해도 찍찍소리 못하고 지어 조선 민족을 전멸 시킬 핵무기들과 탄저균과 같은 대량 살륙 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여도 상관을 오히려 비호 두둔해나서고 있는 것이 쓸개 빠진 박근혜 사대 매국역적들이다.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을 위한 활동을 『종북』, 『리적』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일삼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불

법』을 운운하며 무자비하게 짓밟고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대참사를 빚어내고도 그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독성 최루탄을 쏘아대며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반인륜적 만행의 종합 전시장, 전대 미문의 인권 암흑지대가 바로 박근혜를 비롯한 『유신』 독재의 후예들이 살피고 있는 남조선이다.

이러한 특등인 인권 범죄자들이 감히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한없는 인민 사랑의 정치에 떠받들려 행복의 대화원으로 만발하고 있는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 중상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며 가장 극악무도한 도발 망동이다.

이번 유엔《북인권사무소》 설치란 동은 박근혜 일당의 동족 대결 홍심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 교활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력대 독재자들을 훨씬 끌어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들이 그 무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 단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 모략 소동에 편승하여 『흡수 통일』 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박근혜당의 흥악한 속심이 더욱 명백히 드러난 조건에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더욱 암울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유엔《북인권사무소》가 문제를 다는 순간부터 무자비한 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경고하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뢰당이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화근을 남조선 땅에 끌어들인 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 할 수도 수습 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남조선 피뢰당은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도전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인 대결 광란만을 일삼는 자들은 더 이상 상대 할 것이 못 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천만 군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당이 지게 될 것이다.

유엔의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오명을 남긴 『북인권사무소』라는 유령 모략기구는 분노한 남조선 인민들의 격렬한 투쟁에 의하여 풍지박산 날것이며 피뢰당 치배들의 반인륜적 만행을 폭로하는 전시장으로 되고 말 것이다.

주제 104(2015)년 6월 24일

평양

23일 남조선의 서울에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조선로 동당 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미래 과학자 거리나 양로원 등도 다 인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 침해 실태』를 서울에서 감시, 기록하며 국제 인권 기구와 남조선의 『인권』 단체들 파의

현 계도도 맷어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무소의 개설이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파렴치한 간섭이고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도발적인 조치라는 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공화국은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나라이다. 정치의 근본 바탕에 인민이 놓여 있고 인민을 위해 서는 국가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보살피고 해택을 돌려주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최근 공화국에서

것을 끝끝내 설치하는 놀맞으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미래 과학자 거리나 양로원 등도 다 인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민 중심의 나라를

는 인권 모략기구를 빼앗기고 들어 앉힌 것으로 하여 남조선 당국은 력대 독재 『정권』을 훨씬 통가하는 대결 『정권』, 반통일 『정권』의 진면모를 날 날이 드러내었으며 제스스로 화를 집안에 끌어 들인 격이 되었다.

앞으로 『북인권사무소』의 운영이 북남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이 초래할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재

『인권』을 걸어 모해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훤짓을 겪다고 하는 것과 마찬 가지의 터무니 없는 궤변이고 공화국의 체제 전복을 노린 불순한 정치적 놀음이라는 것은 자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추종하여 북의 죄 앞에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공화국은 이미 유엔《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다면 공공연한 대결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 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 한복판에 공화국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메르스로 인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데 집권자의 사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거세게 울려 나오고 있다. 6월 25일 현재 메르스에 의한 사망자 수는 29명, 이

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 수만 하여도 18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들 중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은 94명으로서 전체 감염 환자 수의 절반 선에서 맴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는 속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늦었고 대응이 잘못됐으나 숙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소는 잊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집권 충내에서 까지 울려 나오고 있다.

본사기자

어리석은 『체제통일』 야망을 버려야 한다

올해는 민족 분열의 년 류이 70돐기를 새기는 해이며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 분열의 비극을 더 이상 지속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온 겨레의 확고한 의지이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북남 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동족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려 북남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국면에 몰아갔다.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동족 대결 소동의 밀바탕에는 『체제통일』의 야망이 깔려 있다.

올해 들어 와서만도 남조선 당국은 새해 벽두부터 『인권』의 간판을 들고 반공화국 『국제 공조』 놀음을 강화하여 『체제통일』의 흥심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것이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동족을 해치기 위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못된 대결 소동만 벌리니 북남 관계가 제대로 풀

려나갈 수 없는 것이다.

오랜 기간 북과 남에서 다른 두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 오는 조건에서 일방이 타방의 체제를 허물고 『체제통일』을 하려고 해서는 대결이 끊없이 지속되고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체제 대결의 끝은 불신의 심화이고 전쟁의 재난이다.

『체제통일』론은 일방의 제도를 타방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본질상 분열 영구화론이며 대결 전쟁론이다.

때문에 나라의 통일을 민족 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면 마땅히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화해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 합리적인 방도가 바로 현지화 방식의 통일인 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민족의 고전미를 살려

평양시 중구역 영광거리 양복점에 가면 뭇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조선옷 창작가가 있다.

이름은 홍송희, 흔히 재능 있는 조선옷 창작가라고 하면 오랜 년한과 경험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그는 당년 28살의 처녀이다. 조선옷 창작분야에 들어선지 불과 5년.

하지만 그는 2012년 9월 제10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결혼식 옷부류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함으로써 관록 있는 창작가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전도유망한 조선옷 창작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옷을 만들기 시작한지 꼭 2년 만에 거둔 성과이다.

년 한은 많지 않아도 조선옷 제작에서 막히는데가 없는 그의 특기는 손님들의 다양한 기호와 현대적 미감에 맞게 만들면서도 조선옷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적극 살려나가는데 있다.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옷은 민족의 얼굴이며 조선옷에는 우리의 민족적 품과 생활양식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

고하면서 현대적 미감을 살린다고 하면서 조선치마저고리의 고유한 속성을 잘 살려 연하고 맑으면서도 가볍고 은근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랙 한다.

기계로 수를 놓기보다 한땀한땀 손수를 놓아가며 조선옷의 고전미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는 남성들이 즐겨 입는 바지저고리를 만드는데서도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려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유리한 생태학적 조건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소나무는 사시장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애착심을 자아냈으며 이러한 감정은 문화과 미술 등 각 이한 정서를 통하여 표현되었다.

세나라시기 황룡사의 벽에 그림을 그릴 때에 솔거는 어떤 그림을 그려 후세에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던 글에 어떤 풍파도 다 이겨내며 굳센 모습으로 서 있는 소나무를 그릴 것을 결심하고 붓을 들었다. 그의

붓글에서 그려진 소나무는 마치도 살아있는 소나무를 련상시켰으며 하여 새들도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날아들다가 벽에 부딪쳤을 때



하기에 그가 만든 조선옷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특색이 정말 잘 살아난다. 외유내강한 조선녀성의 기품이 그대로 풍겨오는 조선치마저고리가 활짝 편 환원마냥 황홀하기 그지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바람세찬 일본땅에서

천대와 멀시속에 살면서도 민족의 넋이 어린 조선옷을 만들어온 외할머니에게서 어려서부터 바느질이며 수놓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조선옷에 남달리 깊은 정파 애착을 기울여온 홍송희 창작가.

대대로 조선옷의 전통을 끊어가는 그에게 있어서 조선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는 단순한 민족옷이 아니라 주체성과 민족성이 활짝 풀어나는 사회주의 내 나라에 대한 자랑과 공지로 되고 있다. 그래서 한뜰의 바느질에도 정성을 고이고 꽂하나를 수놓아도 온갖 지성을 기울이고 있다.

홍송희 창작가는 말한다.

《민족의 자랑인 조선옷을 더 훌륭히 만들어냄으로써 누구나 조선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를 즐겨입으며 민속전통을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겠다.》

본사기자 강류성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축우기

평양민속공원에는 1441년에 발명되어 널리 리용하였던 강우량(비내림량) 측정기구인 축우기의 모형이 있다.

동근통모양의 그릇을 대우에 올려놓고 비물을 받아 그량을 재게 되어 있는 축우기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러한 축우기를 중앙과 지방의 판청마당안에 설치하였다. 중앙에서는 철이나 동으로 만들고 지방에서는 사기 또는 진흙으로 만들어 강우량을 판촉하였다.

각 고을들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맑게 개인 시간 및 그동안의 강우량을 측정하여 해당 도에 보고하고 각 도에서는 중앙의 서운관에 집결시켜 장악하고 기록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그렇게 놓고 보면 축우기에 의한 과학적인 강우량 측정 방

법과 측정 결과를 종합하는 제도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가 제일 먼저 창안하고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축우기의 발명은 세계 기상학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본사기자 고영숙



고전시

양지쪽의 쑥

리종육 (1797 ~ 1841년)

눈이 녹은 시내가에 비빛고 개였는데 날이 업고 미풍불어 쑥잎이 파릇파릇 원추리와 더불어 푸른 색갈 다투고 향초네를 깔보며 춘정을 빼앗누나

애어린 잎 봄철에 락 빛으면 제격이요 좋은 향기 설날의 떡국과 어울리네 밥상우의 나물반찬 그 맛을 다룬다면 토란, 파, 아욱도 쑥나물보다 못하다오

《백양반 주십시오.》 식간에 쓴 글을 백양이나 《백양이요? 그건 너무 달라니 너무 심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쓰기는

순식간에 쓰으나 그

만큼 글씨를 배우느

라고 20년 동안이나 공을

들었으니 옹당 쓴 값에 배

운 값까지 내야지요.》

유묘아

쓴 값에 배운 값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다니요?》

《금방 이 자리에서 순

적은 무인도마냥 적막하

기만 하였다. 설매는 불길이 충천하는 설나무주위를 성급히 돌고돌았으나 나직한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때였다. 불길너머 어데선가 《설매!》 하는 응곡은 소리가 들렸다. 흥청 소리의 방향을 찾던 설매는 널름대는 불길너머에서 빤히 마주보는 웬 사나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로 달려

명 《갓걸재》를 넘던 낮익은 충신, 하루밤 정분을 나눈 낮익은 나그네, 설매의 가슴속에 첫 련정을 짜트운 열네 살적 달빛이 교

교한 후원속의 그 짚은이였다. 설매는 설분을 터치며 막아선 불길 달린 설나무를 마구 헤집어 휘뿌렸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여보!》 하고 그를 향해 두팔을 벌렸다.

대방은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도 숨염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인상에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정겨운 눈빛은 불빛에 어울려 유난히도 빛나고있었다. 비록 자그마한 눈동자의 반짝임이었으나 그 것은 설매의 가슴속에 크나큰 넘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하였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두문동마을엔 채 식지 않은 재가루가 바람에 흘날리고 있었으나 설매의 귀전엔 분명히 들리는 듯한 소리가 있었다.

《차라리 왕씨의 혼귀가 될지언정 리씨의 신하로는 되지 않으리.》

《갓걸재》에서 들었던 왕군님의 기개 높은 읊음이었다.

(끝)

(10)

그림 김윤일

서제서 음지락거렸으며 겁먹은 눈길들을 껌뻑대었다.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역신의 왕초 리성계는 저도 몰래 쓰린 가슴을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토했다. (아!)

하찮은 기생까지 충신은 송양하고 역신을 절규하며 왕씨고려를 차마 못잊어 리씨왕조를 쓴 오이보듯 하니 장차 어찌될까?

어서 이 자리를, 송도기생들을 피해 멀리의 무인지경에 궁궐을 짓고 밝은 세상을 피해 그속에 부엉이처럼 웅크리고 싶었다. 아울러 민심을 놀리고 피문은 청룡도를 들었다고 하여 승자도 제왕도 하지 않았다. 기생이 내친 한마디였으나 맵짜기 가 설한 풍이였으며 그 설

리성계는 등국후 2년 만인 1394년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는데 이날의 기생놀이와 송도의 가는 곳마다에서 받은 행대는 그가 천도의 긴박성을 절감

하게 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설매는 두문동을 향해 어둠속을 달리고 달렸다. 벌써 오정문너머에서 화팡이 피빛처럼 하늘가를 물들었다.

두문동에 땅았을 때엔 집들을 통채로 뒤덮은 설나무에 달린 불길이 강풍에 휘말려 화약처럼 타번지 속에서 역신들은 불길속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때였다. 불길너머 어데선가 《설매!》 하는 응곡은 소리가 들렸다. 흥청 소리의 방향을 찾던 설매는 널름대는 불길너머에서 빤히 마주보는 웬 사나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로 달려

적은 무인도마냥 적막하

기만 하였다. 설매는 불길이 충천하는 설나무주위를 성급히 돌고돌았으나 나직한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때였다. 불길너머 어데선가 《설매!》 하는 응곡은 소리가 들렸다. 흥청 소리의 방향을 찾던 설매는 널름대는 불길너머에서 빤히 마주보는 웬 사나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로 달려

명 《갓걸재》를 넘던 낮

익은 충신, 하루밤 정분을 나눈 낮

익은 나그네, 설매의 가슴속에 첫 련정을 짜트운 열네 살적 달빛이 교

교한 후원속의 그 짚은이였다. 설매는 설분을 터치며 막아선 불길 달린 설나무를 마구 헤집어 휘뿌렸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여보!》 하고 그를 향해 두팔을 벌렸다.

대방은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도 숨염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인상에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정겨운 눈빛은 불빛에 어울려 유난히도 빛나고있었다. 비록 자그마한 눈동자의 반짝임이었으나 그 것은 설매의 가슴속에 크나큰 넘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하였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두문동마을엔 채 식지

않은 재가루가 바람에 흘날리고 있었으나 설매의 귀전엔 분명히 들리는 듯한 소리가 있었다.

《차라리 왕씨의 혼귀가 될지언정 리씨의 신하로는 되지 않으리.》

《갓걸재》에서 들었던 왕군님의 기개 높은 읊음이었다.

(끝)

설

12H

글 박민한,

부르며 두 임금을 섬기는 신하는 뭐라고 하옵니까?

이 물음에 어느 대감도 대답을 줄 수 없었다. 그 것은 아무리 후안무치한 역신들이래도 《탕녀》, 《역신》이라는 말은 차마 입밖으로 내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일어선 설매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두문동을 향해 달렸다. 죽음도 각오한 설매이기에 두렵지 않았다.

설매는 좌중을 둘러보며 무게 있게 말을 건넸다.

《기생들은 〈동가식 서가속〉 이고 이녀는 아침저녁으로 변덕이 심할 진대 어제는 〈왕씨〉 임금의 신하가 되었다고 오늘은 〈리씨〉 임금의 신하로 요리조리 둔갑하는 대감님네들에 짜지지 않소이다.》

남은은 순간에 고함을 질렀다. 《뭐, 뭐라구? 발칙한 년! 언감…》

그러거나 말거나 설매는 제 할말을 마저 내뱉었다.

《두 남자를 서방으로 섬기는 유부녀는 뭐라고

서제서 음지락거렸으며 겁먹은 눈길들을 껌뻑대었다.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역신의 왕초 리성계는 저도 몰래 쓰린 가슴을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토했다. (아!)

하찮은 기생까지 충신은 송양하고 역신을 절규하며 왕씨고려를 차마 못잊어 리씨왕조를 쓴 오이보듯 하니 장차 어찌될까?

어서 이 자리를, 송도

기생들을 피해 멀리의 무인지경에 궁궐을 짓고 밝은 세상을 피해 그속에 부엉이처럼 웅크리고 싶었다. 아울러 민심을 놀리고 피문은 청룡도를 들었다고 하여 승자도 제왕도 하지 않았다. 기생이 내친 한마디였으나 맵짜기

가 설한 풍이였으며 그 설

리성계는 등국후 2년 만

인 1394년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는데 이날의 기생놀이와 송도의 가는 곳

마다에서 받은 행대는 그가 천도의 긴박성을 절감

하게 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설매는 두문동을 향해 어둠속을 달리고 달렸다. 벌써 오정문너머에서 화팡이 피빛처럼 하늘가를 물들었다.

두문동에 땅았을 때엔 집들을 통채로 뒤덮은 설나무에 달린